

2004 겨울호

마흔셋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훈훈한 정을 나누는 연말연시 보내세요~

<http://www.kclf.org>



웃음 전도사! 똑딱이 아빠 김종석입니다.

김종석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홍보대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딱이 아빠 김종석입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면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구르고, 뛰면서 2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눈에 들어온 아이들은 보통의 건강한 아이들보다는 함께 구르고 뛸 수 없는 소외된, 몸 혹은 마음에 병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 작은 힘으로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좀 더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웃음을 매개로 아이들 치료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웃음치료사'가 되어야겠다 마음먹고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아동학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아이들을 위한 '웃음치료'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통해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아프다는 생각을 모두 잊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며 생기가 있어지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마음 뿌듯해집니다.

이런 제가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지속적으로 아픈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감사하고도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아암 아이들이 많이 웃고, 즐거운 생각만 한다면 암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웃음과 즐거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음이 건강해 지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 지기 마련입니다.

친구들과 부모님, 항상 즐거운 생각만 하고, 하루에도 10번 이상 웃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실까요? "하~ 하~ 하~"

김종석 홍보대사는 MBC 개그맨 공채 3기 출신으로, EBS '딩동댕동 유치원'의 똑딱이 아빠로 9년 동안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린이프로그램 전문사회자인 김종석 홍보대사는 현재 성균관대 대학원 아동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으로 아동을 위한 웃음치료에 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늘 행복을 안겨주는 나의 둘째딸, 사랑한다...

너무나 큰 시련이지만 우리가 슬기롭게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주에게 힘을 주세요. 너무도 예쁘고 항상 마음 속에 흡족함과 만족과 행복을 안겨주는 나의 둘째딸.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잘 견디게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 2003 . 8 . 10 . 일요일 입원 19일째 되는 날 쓴 일기 -

건강하고, 터프하고, 명랑하고, 예쁘고, 활발하고, 예의바르고, 항상 활짝 웃는 얼굴이었던 현주가 잠만 자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던 모습이 초기증세이었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가는 길에 머리가 아프다고 울며 집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 동네 내과를 열흘 넘게 다녀도 차도가 없어 좀 더 큰 병원 소아과로 가서 혈액검사를 해보게 되었다.

결과를 확인하기 전 현주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아람단 여름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났다. 현주가 서울에 없는 동안 가족들은 현주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주를 되돌아오게 하였다. 가족모두 공항에 나갔을 때 현주는 너무도 예쁘고 활짝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우리의 달라진 대접에 불안함을 느꼈나보다. 힘들었는지 돌아와서도 잠만 잤다.

입원하던 날 겁이 많은 현주는 하루 종일 울면서 혈액·척수·골수검사를 하나하나 해냈고 곧 항암과 삽입수술 후 무균실로 들어갔다. 너무나 겁나고 두려운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제 어느덧 1년하고 4개월이 지났고, 일주일여 한번씩 병원에 다니며 유지요법 치료중이다. 그동안 우리 이웃들과 학교 친구들의 사

랑과 관심은 현주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 병원은 이제 편안한 공간이 되었다.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 현주사랑의집 미니도서관의 책들은 병원생활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었고 여러 가지 궁금궁 해소에 도움 되는 책들도 많았다.

금년 여름엔, 현주가 한참 예민할 나이에 너무나 큰 시련을 겪어 마음에 상처가 깊지 않을까 걱정하던 중,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3~4개월 동안 참여했다.

미술치료 선생님께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현주는 표현력이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그다지 큰 문제점은 없으며, 병원치료와 현실에 긍정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셨다. 또 병원에서 친해진 가족들과 제주도·강화도·여주·민속촌 등 아이들을 위한 캠프에 참여했던 것도 현주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리라 생각된다.

요즘 현주는 아프기 전에 늘 그랬듯이 학교에 갔다 오면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재미있게 조리 있게 엄마한테 설명해주느라 바쁘다. 그런 현주를 보며 현주를 아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행복을 느낀다.



2003년 7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진단받은 현주는 현재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현주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에 건강장애 포함



‘참여정부’ 출범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복지정책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이 개인적, 사회·경제적, 장애요인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전국 특수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의 수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정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높아진 국민적 요구수준을 반영하고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수교육 정책추진을 위해서 이며, 특히 특수교육 대상 장애 범주에 **‘심장장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포함한 것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현재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백혈병·소아암 등 장기질환으로 휴학·중퇴하는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부족한 것

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장애 범주에 ‘건강장애’가 추가되어 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지원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4년 현재 부산교육청에서는 부산대학병원 내 유치원과과정 병원파견학급을 1개학급 설치·운영 중에 있고, ‘05년도에도 2학급을 추가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향후에는 부산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병원파견 특수학급이 계속 증설될 전망입니다.

‘건강장애’가 장애범주로 정식으로 추가되면, 국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과정에 ‘건강장애’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일선 교사들의 ‘건강장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고, ‘소아암 학생지도 가이드’(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발간 소책자 시리즈 제6호) 등과 같은 소책자 등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여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에서는 병원파견학급 외에도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교·산업체 협력 작업장 운영을 확대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 07')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에

‘**심장장애 · 장장애 ·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포함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권택환 교육연구사

하고, 직업교육의 전문화와 성공적인 성인생활 전환능력 신장을 위해 근로현장과 연계한 산업체 파견학급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특수학교에만 배치되어 있는 치료교육교사를 특수학급에도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결함을 보충하고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장애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학교 치료 교육 담당교사 배치기준도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6개학급 이하 1인, 6개학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6개학급마다 1인 추가 배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 07')**」의 수정안은 병원파견 특수학급 증설은 물론 치료교육 담당교사·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장애학생의 지원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 및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향후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보다 증액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번 수정안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3,000억원을 증액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및 지방교육 재정도 연차별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유도하여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수정안이 착실히 추진하게 되면 2007년도에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기회가 완전 보장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국 특수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대등하게 학교 및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건강장애가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에 포함되면, 장기 입원으로 인해 휴학·중퇴한 소아암 어린이들도 병원파견 특수학급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오른 다리

1950년대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대학로 한 카페에서
자상한 인상의 이동엽씨를 만날 수 있었다.
너른 창가 옆으로 자리를 잡고 22년 전부터 시작된
그의 도전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1982년 어느날...

운동을 좋아하던 그는 친구들과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갔다. 롤러스케이트가 처음이었던 그는 여느 아이들과 같이 넘어 지기도 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며칠 후 무릎 바로 아랫부분이 아파왔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지면서 뭔가 잘못 됐겠거니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뼈에 금이 갔으니 당분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깁스를 한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점점 심해져만 갔다.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한 결과 '골육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병원에서 내린 치료방법은 전이를 막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것... 뼈에 금이 간 줄만 알았던 12살 꼬마

는 간단한 수술로 알고 수술대에 올랐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아래쪽을 내려다 봤을 때, 그는 그의 오른 다리를 볼 수 없었다. 철모르는 어린 꼬마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 순간부터 이제까지와는 다른 상황들이 그에게 전개되었고, 그 상황들에 적응하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수술 후, 한 달에 한번 정기검사를 제외하고 더 이상의 병원 치료는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과제는 '재활'이었다. 요즘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 그가 할 수 있었던 재활치료는 집에서 가족의 도움과 스스로의 의지로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진 신체에 적응해 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동안 혼자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다. 그에게 벌어진 일들엔 아랑곳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그의 몸과 생각도 성장하였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던 그는 사춘기를 겪으며 세상을 향한 벽을 쌓아갔다. 그것이 스스로를 상처받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 굳게 믿고 꽤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말을 섞는 일을 피해 왔다. 달라진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일에도 서서히 지쳐갔다.

그런 그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 진학할 즈음의 일이었다. 대입 전기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고 난 후, 그는 미술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길 원하셨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뜻을 굽힐 수는 없었다. 어렸을 적 작은 미술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만





이동엽

1971년 3월 11일생

1982년 7월 골육종 진단

1987년 치료종결

2004년 영국 Chelsea college MA Fine Art

석사학위수여



있을 뿐 미술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오던 그가 180°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도 많았다. 하지만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실기와 필기를 준비한 결과 이듬해 고려대학교 미술교육학과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걸 수 있었다.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대학에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런 생활 속에서 그는 “그동안 내가 쌓아 온 벽은 내가 허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좌변기가 없는 학교 화장실을 피하기 위해 아침을 거르거나 조퇴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대신 좌변기가 없는 화장실에 적응하기 위한 연습을 하였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스케치 여행 등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의 의족을 보고 놀라는 친구들에게도 적응해 갔다. 의족에 몸을 맞추기 위한 체중조절도 익숙해져 갔다. 도봉산 스케치 여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한 그를 보고 한 친구는 ‘독한 놈’이라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 도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육체적·정신적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학부를 마치고 고려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3년 넘게 모교에서 강의를 했다. 그의 열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2년 영국으로 건너가 회화·실치미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개월 전 귀국하였다. 그는 현

재 대학 강단에 서기 위한 준비와 내년쯤으로 계획하고 있는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나의 오른 다리’는 2000년 처음으로 가졌던 개인전의 주제였다. 그가 이겨낸 병마, 견뎌온 아픔, 누구와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모두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계획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그 동안 몇 차례의 좋은 인연을 만났지만,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편견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해 왔지만, 그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치료중인 또는 치료를 마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조금하듯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다른 사람보다 잘 못하는 점은 미리 준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소한 일 일지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기야 한다고 말이다. 욕심이 크면 좌절도 쉽게 오기 마련이기에 조바심 내는 것은 아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지치게만 할 뿐이라며 가족은 적당한 관심으로 치료 후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욕심을 적정수준의 의지로 북돋워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재단에서 미술치료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신 선생님의 추천으로 인터뷰를 하게 된 이동엽씨...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어 보였습니다. 인간 승리의 신화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추천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강한 의지의 사나이 이동엽씨!!! 훌륭한 교육자로, 탁월한 예술가로, 자상한 가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밀에 부치셨던 2회 개인전 주제 상당히 궁금합니다. 전시회가 열리면 꼭 초대해 주세요~ *^^*

헌사랑의 집에서는...

서울 우체국 헌사랑의집

과학교실 교육자료집 발간



1996년부터 소아아암어린이들을 대상으로 PC교육을 실시해 주신 삼성SDS '푸른마을 봉사클럽'. 2001년부터는 컴퓨터교육과 더불어 과학교실을 진행해 왔는데,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암어린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에 지난 3년간 교육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삼성SDS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함께한 과학교실 교육자료집'을 지난 9월 발간하였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동안 바쁜 업무 중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 주신 삼성SDS '푸른마을봉사클럽'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든든한 겨울나기



추운 겨울을 보낼 생각에 몸부터 움츠러 드는 어느날... 겨우내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푸짐한 쌀을 전해주시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주) 직원분들이 헌사랑의집을 찾아주셨습니다. 30포대의 쌀을 보는 순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헌사랑의집을 이용하는 소아암 가족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맛있는 쌀을 후원해 주신 한국정보통신(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조혜린 사회복지사 〉

여의도 우체국 헌사랑의집

동화 들려주는 여자

지난 6월부터 박은정 선생님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동화구연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흥, 난 입 큰 개구리만 잡아먹는다'

이 벼락같은 소리에 아이들은 울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끝까지 숨죽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때론 맹수로, 때론 자상한 할머니로, 때론 재미있는 원숭이로 둔갑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에 푹 빠지게 합니다.

한보파리의 소품들을 가지고 오시느라, 온 맘과 정성으로 이야기를 하느라, 항상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는 선생님께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짹, 짹, 짹! 갈채~~~~~, 함성..... (와~~~~~) 들리시나요?

앞으로도 선생님의 열정적인, 감동적인 동화구연 무대를 기대합니다.

〈 김민선 · 손은주 사회복지사 〉



● 대구 우체국 혼사랑의집 ●

제2회 혼 사랑 가족캠프 “우리는 희망입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우체국 혼 사랑의 집에서는 행정자치부의 '2004 민간단체 공익 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캠프를 무주리조트로 다녀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려 캠핑장으로 가는 내내 걱정이 많았는데, 2시간 남짓 달려가 도착한 캠핑장은 해맑은 가을하늘로 가족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숙소로 도착해 어머님들께서 손수 준비해주신 점심을 맛나게 먹고, 모두들 놀이공원으로 달려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죠.

저녁에 시작된 집단프로그램. 아이들은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체화를 만들어 보았고, 부모님들은 스트레스측정과 자신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곡선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어진 재밌는 보드게임으로 저녁시간은 후다닥 지나가 버렸죠. 프로그램이 끝난 후 숙소마다 장금이 상을 두고 벌인 '참참참! 떡볶이 만들기 대회'. 모두들 너무 맛있게 만들어 주셔서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공동 수상으로 결정해 버리셨답니다.^^

다음날 아침 멋진 곤도라를 타고 올라간 덕유산. 가족들과 함께 파란 가을하늘 아래서 산 밑을 바라보는 기분이란... 보물찾기 하듯 찾아간 약수터도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힘든 치료생활은 잊어버리고, 활짝 웃으며 신나게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내일이 가을하늘처럼 화창하게 개일 수 있기를 마음 속으로 빌어 봅니다. 후원해 주신 행정자치부에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하정연 사회복지사 >

● 부산 우체국 혼사랑의집 ●

모세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는



지난 가을 40여 명의 소아암 가족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안 되는 모세의 기적이 열리는 그 곳 갯벌은 우리 환아들의 고대하고 기다렸던 마음을 알았던 것인지 도착한 지 10분만에 신비한 바닷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갯벌에서 바지락도 캐고 자연이 주는 신비함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우리들은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잠시 잊고, 자연과 벗 삼아 소중한 추억을 만들수 있었답니다.

꿈 속에서도 백두거인과 흑룡거인이 ^^



혼 사랑의집에서 동화구연 자원봉사를 해 주셨던 김은주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백두거인과 흑룡거인'이라는 연극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함께 공연을 본 친구의 한마디 "꿈 속에서도 나타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소망은 바로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오늘의 즐거운 웃음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오래오래 간직되길 소망하며, 좋은 공연에 초대해주신 김은주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박미주 사회복지사 >

아(아끼고) 싸(사랑하자)!!!

양 윤 화 학습지도 자원봉사자

누군가를 위해 조그만 힘이 되고 싶었지만 여러 핑계로 미루기만 하다가 작년 봄 인터넷에서 학습봉사 활동을 하는 병아리 카페를 알게 되었죠. 그렇게해서 선생님 몇 분과 처음으로 찾아가게 된 우체국 훈 사랑의 집...

평소에 잘 와 보지도 않던 병원을, 게다가 소아과 병동을 찾아가는 마음이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여러 가지 의료기구들과 호스가 몸에 연결된 아이들을 보고 막상 인사를 건넨 후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꽤나 어색했던 것 같아요. 긴장해 있던 저희들과는 달리 환하게 반겨주

시던 어머니와 아이들 덕분에 겨우 몇 마디 대화를 나눴어요. 한두 시간 수업이 계속되자 도움이 되고자 했던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과외 공부하듯 수업하는 것이 아이들의 힘든 투병생활에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오랜 병원 생활로 외롭고 삭막해진 아이들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건 영어단어, 수학 공식 하나가 아니라 끈끈한 정과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수업도 수업이지만 같이 놀러갈 궁리에 열심이랍니다.

두 번의 만남이 끝이었던 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지금은 하늘 나라에 있을 대흥이...

같이 공부하자고 소매 붙들던 나에게 수줍은 모습으로 끌려와 검정고시에 당당히 합격한 동현, 준기... (둘 다 스파르타식 수업에 아무 불평 없이 잘 따라 주어 너무 고맙고, 시험 합격한 것도 기쁘지만 치료 끝내고 건강한 모습이어서 더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워요.)

첫 만남에서 휠체어를 탄 채 환하게 웃어주던 영훈이... (지금은 다리 수술 받고 스스로 걸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호전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도 참 흐뭇한 것 같아요)

치료중이라 힘들지만 수업시간

에 어김없이 준비하고 있는 모범생 희준이... (기타에다 피아노까지 예체능과목을 두루 섭렵한 인재랍니다.)

그 외에 세정, 지현, 미래... 모두 착하고 멋진 아이들이랍니다.

우리 모두 앞에서 깨어난 병아리처럼 연약할진 모르지만, 사랑이란 모이를 먹고 조금씩 성장하며 서로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애들이 모두 모두 정말 사랑해.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활동해 온 여러 선생님들께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병아리 파이팅! 아(아끼고) 싸(사랑하자)!



양윤화님은 2003년부터 대구 우체국 훈 사랑의집에서 학습지도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진은 얼마전 아이들과 함께한 경주 나들이에서의 모습입니다.



불안하고 걱정 많은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

- 아동기 불안의 인지행동치료 지침서 -

Ronald M. Rapee
Susan H. Spence
Vanessa Cobham
Ann Wignall

소개의 글

언젠가 들은 이야기이다. 아이는 몇 년 간의 치료를 모두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에 여름의 끝자락에서 극성스럽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듣고는 '엄마, 재네들도 골수검사 했나봐' 라고 했다고 한다. 치료를 모두 끝낸 아이에게도 그 기억은 아픈 자리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모든 치료가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조금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골수검사 전 걱정하는 아이에게,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며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부모들은 이 책을 통해 치료과정을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아예 이야기하지 않거나, 선물로 보상해주는 것 외에 보다 새롭게,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 중 몇몇 가지는 우리 부모들이 함께 해본다면, 아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의도 우체국 훈사랑의집 사회복지사 손은주

• 책의 내용 •

이 책은 인지행동치료라는 전문적인 심리학적 치료방법을 일반인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쓰인 치료지침서이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아동기 불안문제의 유형과 원인, 그리고 불안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는 이완법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아이의 불안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법들과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부모님과 교사로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적절한지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제6장에서는 아이들 스스로가

두려워하던 문제나 상황에 직접 부딪혀 봄으로써 불안을 극복하게끔 하는 '현실검증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제7장은 불안한 아동들이 흔히 보이는 사회성기술 및 자기주장능력의 부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아울러 사회성과 자기주장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하였던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 책에서 제시한 각각의 기법들이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또한 그 효과가 어땠는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공고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재발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역자 서문 중 발췌)

출판사 시그마프레스

이 책은 현재 서울·신촌·여의도 우체국 훈 사랑의집 미니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모이는 곳

1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 하는 '삼성그룹 자원봉사 이야기'



하나,

삼성SDS의 1M 1원 마라톤

11월 7일에는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삼성SDS의 1M 1원 마라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는 1M를 달릴 때마다 1원씩 적립하여 모금한 금액을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지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올해는 100여명의 마음 따뜻한 삼성SDS의 마라토너들이 참

석한 가운데 3000여만 원이 모금되었고, 이중 100만 원은 재단을 통해 3명의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두울,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11월 6일 오후 7시 KBS홀에서 제2회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에 소아암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우러져 환상의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2003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아암 투병중인 어린이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백혈병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치료비 후원금 17,163,500원은 4명의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엣, 삼성SDS의 예쁜 그림그리기 대회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삼성SDS '푸른마을봉사클럽' 주최의 '컴퓨

터로 그리는 예쁜 그림그리기 대회'가 10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소아암어린이들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배우고, 푸짐한 상품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소식지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카드도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윤지영(8) 어린이의 작품입니다.

2 (주)하이모의 아주 특별한 사랑

재단을 통하여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가발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 (주)하이모에서, 이번에는 사원 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사원 개개인의 정성으로 모인 후원금 50만원으로 더 많은 소아암 어린이에게 가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암치료로 인해 모발이 모두 빠지게 되는 소아암 어린이에게 '가발'은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정서적 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의 정서적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주)하이모와 사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아시아 3개국 소아암 어린이 돕기, 한류스타 경매행사



옥션(주)에서 후원하고 (주)헤럴드경제신문사가 주최한 '한류스타 아시아 3개국 경매행사'를 통해 모금된 소아암 치료비 후원금이 지난 10월 11일 하유정 어린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가량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스타들의 애장품 경매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애쓰시고 경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홍보대사 이승환님의 亂李 콘서트



2004년 KARMA 앨범으로 돌아온 재단 홍보대사 이승환님의 콘서트가 2004년 11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올림픽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亂李 공연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몇 가지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답니다. 하나, 일정기간 동안 재단의 신규후원자로 등록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이승환 홍보대사님의 亂李 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공연 티켓을 구입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표를 양도해 주신 훈훈한 이벤트 후기도 있었답니다. 두울, 공연장 앞에서 펼쳐진 '차카게살자' 이벤트였습니다. 공연장 입구에 설치한 모금함에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께 오로라월드(주)에서 후원받은 예쁜 인형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콘서트를 통한 '차카게살자' 모금 행사는 2005년 1월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이벤트를 마련해 주신 홍보대사 이승환님과 (주)드림팩토리클럽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 오로라월드, 소아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세계적인 캐릭터 디자인 전문기업 오로라월드(주) (대표이사 홍기우)에서 올해도 2억원 상당의 인형을 재단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오로라월드(주)는 소아암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2002년부터 매년 실천해오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기증된 인형들은 각 병원의 송년잔치 및 재단 행사시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6 메릴린치증권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에서는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이식을 앞둔 4명의 소아암 어린이에게 총 2800만원의 이식비를 후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식비 후원이 결정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소아암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 우체국 훈사랑의 집에 직접 방문해 주셨던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7 똑딱이 아빠 김종석 홍보대사 위촉식



지난 11월 16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소아암병동에서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홍보대사로 똑딱이 아빠 김종석님을 위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연예인들의 모임인 "(사)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이경호 회장과 연기자 김원희, 박선영, 김효진님도 함께 참석하시어 소아암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해주신 (사)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김종석 홍보대사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8 사랑의 헌혈증 기증

하나, 한화그룹 6개사 (한화건설, 한화종합화학, 한화무역, 한화화학, 한화국토개발, 한화 S&C)의 20 여명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헌혈 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을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생명 나눔운동'에 동참하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혀주셨다고 합니다.

두울, 박금자산부인과는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박금자산부인과 전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분들께서 모아주신 헌혈증을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헌혈증 전달식에서 박금자 원장님께서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완치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힘들지만 용기 잃지 말고 잘 이겨내길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세엣, (주)드림팩토리클럽에서는 이승환님의 팬 여러분께서 모아주

신 헌혈증을 재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엣, 서울지역 각 쉼터 시설청소 및 관리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계시는 **한국남동발전(주)** 직원여러분께서 이번엔 헌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회사 내 사회봉사단 창단식과 함께 헌혈행사를 펼쳐 모아주신 값진 헌혈증 이었습니다.

다섯, 고희성재 부모님과 흥태현 부모님께서도 재단으로 헌혈증을 기증해주셨습니다. 특히 고희성재 부모님께서서는 성재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헌혈증이 필요한 소아암어린이들에게 사용해 달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가득 담긴 소중한 헌혈증,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특별후원환아 소개 ♥

우체국 한사랑 기금 33,000,000

정은혜(생식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 300 만원
 박형찬(신경모세포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 300 만원
 김용대(급성림프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 300 만원
 광기원(신경모세포종/영남대학교병원/대구) : 300 만원
 김지옥(뇌종양/부산백병원/경남 마산) : 300 만원
 서우민(급성림프구성백혈병/인하대학교병원/인천) : 300 만원
 김종현(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전북) : 300 만원
 박수미(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전북) : 300 만원
 김지유(수모세포종/경북대학교병원/대구) : 300 만원
 정지운(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전남) : 300 만원
 윤지영(악성신경수초종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300 만원

배재열기금 2,000,000

양지희(황문근육종/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 100 만원
 이복규(윌름종양/인하대학교병원/인천) : 100 만원

에스콰이어기금 1,000,000

안윤희(생식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부산)

이래기금 4,000,000

박진혁(유잉육종/경희의료원/서울) : 100 만원
 박호남(재생물량성빈혈/세브란스/경기) : 100 만원
 노현우(중증재생불량성빈혈/서울대학교병원/경기) : 100 만원
 신영재(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 100 만원

동양생명기금 5,000,000

김주원(중증재생불량성빈혈/동아대학교의료원/경남)

송석복지재단기금 8,000,000

조동수(급성림프구성백혈병/영남대학교병원/경남) : 400 만원
 김정원(급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 400 만원

차카게살자기금 3,000,000

이현수(급성림프구성백혈병/세브란스/서울)

삼성SDS기금 15,000,000원

곽상철(급성혼합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충남 아산) : 500 만원
 구은정(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 500 만원
 김은성(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서울) : 500 만원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기금 17,163,590원

김시연(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서울) : 500 만원
 남기원(림프종/삼성서울병원/충북 청주) : 300 만원
 정원호(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경기) : 500 만원
 정준영(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전북) : 4,163,590 원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기금 3,000,000원

기동욱(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1.



그날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눈물이 났어.
웃음이 멎을 줄 몰랐어.

2.



너무 힘들어서
친구에게 울먹이면서
거절했어.

3.



우리집까지 다녔는데는
가면을 꼭 써야 하고..
아무 말도 없었어..

4.



나.. 가면 먹고 눈물이 멎을 줄 몰랐어.
눈물이면 또 전환할 거니까
가면 꼭 써야 했어.



● '신한사랑나눔' 캠페인은 쭉쭉~ 계속됩니다. ●



'신한사랑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0월까지 총 286명의 고객 분들께서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포인트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http://www.shinhancard.com/Gibu/mail.jsp>)를 통하여 신용카드 고객 및 프리체크카드 고객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 '신한사랑나눔' 캠페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 홍보모금함 "헌사랑 모아"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는 "우체국 헌사랑의 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아울러 소아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환으로 홍보모금함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홍보모금함 "헌사랑 모아" 설치를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우체국 헌사랑의 집"의 정서적 지원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현재 11곳의 후원처에 3개의 모금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헌사랑 모아' 사업에 동참해 주고 계신 후원처를 소개합니다. ♥

	후원처	주소
1	명륜동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31-2
2	태평양 참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66번지
3	카페두레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18-3
4	長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3
5	산적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03-8
6	휴대지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39-2
7	오크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115-9
8	메디팜원호 종로약국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91-4
9	서울대학교병원 우체국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10	용문동 우체국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1-157
11	서대문 우체국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98-2

※ 모금함 설치를 통하여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 하고자 하신 분들은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 766-7671

♥ 한뜻후원자 소식

감 사 합 니 다.

신규회원 소개 (2004. 9. 1. ~ 2004. 11. 30.)

조도연

* 2004년 11월 30일까지 63 분이 한뜻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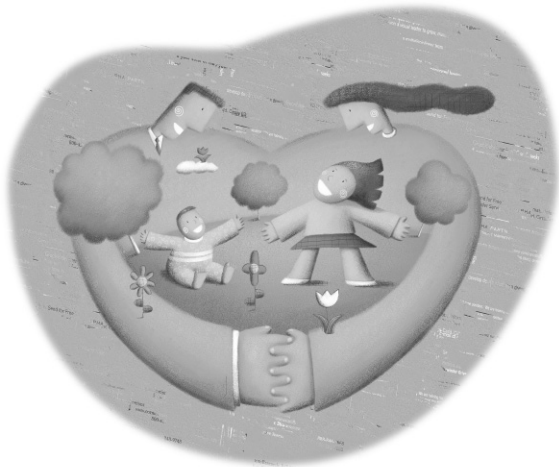
♥ 수호투사 소식

새로 등록하신 수호투사입니다. (2004. 9. 1. ~ 2004. 11. 30. / 가나다 순입니다.)

고범석 박미영 박순우 방요환 배봉찬 장미연 조도연 최연우 최희진

★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고 계시는 수호투사후원자님께서도 편리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세요!

※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 (5일)에 지정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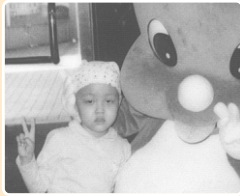
- ◆ 새로 신청해주신 수호투사님, 이미 수호투사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4. 11. 30. 현재까지 1,122 분이 수호투사로 가입해주셨습니다.)
- ◆ 수호투사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clf.org/후원안내/명예의전당)

후원계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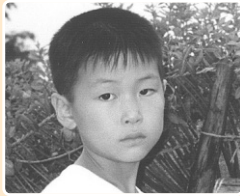
- ◆ 예금구좌
 - 310-03-002396 (조흥은행)
 - 012-9990-1003327 (우체국)
 - 090-000260-44015 (기업은행)
 - 0010-12353-880 (국민은행)
 - 0290-1-176943 (농협)
- ◆ 예금주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천사백운동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2004. 9. ~ 2004. 11.)



권하영(여/만5세)
급성혼합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2004년 1월 제대혈이식시행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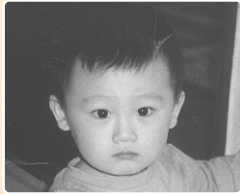
장정성(남/만 8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회순전남대학교병원
2004년 10월 제대혈이식시행



이승현(남/만5세)
원시신경외배엽성종양/서울아산병원
2004년 11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행



성진모(남/만1세)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
2004년 11월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시행



박형민(남/만3세)
수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
2004년 12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행



이가인(여/만1세)
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11월 타인조혈모세포이식시행



손지영(여/만6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11월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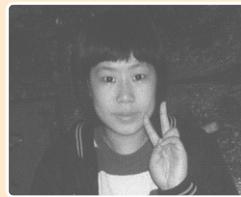
신규식(남/만4세)
신경모세포종/회순전남대학교병원
2004년 11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행



박세용(여/만 9세)
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4년 1월 타인조혈모세포이식시행예정



박주희(여/만 5세)
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
2004년 12월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시행



박세희(여/만 15세)
림프종/부산대학교병원
2004년 12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행



이재용(남/만 9세)
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1월 타인조혈모세포이식시행예정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4. 11. 30. 현재)

참여후원자 : 3,197명 구좌수 : 15,141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4. 9. 1. ~ 2004. 11. 30. 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국민은행 CMS

김기정 박혜성 백승민 신민정 안국환 이경희
이민애 조남욱 최정연

기업은행 CMS

김주현 최진희

농협 CMS

영희 임병길 정상훈 홍미화 황치영

대구은행 CMS

박성주 최정남

신한은행 CMS

김혜진

외환은행 CMS

김은영 박은주 정미희

우리은행 CMS

김상수 박소영 이경현 이혜림 정신자 최진숙

조흥은행 CMS

강철원 박미화 박미희 조민자 주예순 최경옥

하나은행 CMS

문윤현 하주완

후원계좌 안내

경남은행 : 514-07-0175564

광주은행 : 200-107-315315

국민은행 : 031-01-0414-356

기업은행 : 090-000260-04-022

농협 : 029-01-170940

대구은행 : 004-05-179828-001

부산은행 : 070-01-021379-8

신한은행 : 394-01-000694

외환은행 : 141-22-00799-6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체국 : 012989-01-003313

제일은행 : 225-20-385050

조흥은행 : 367-01-192434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한미은행 : 100-59711-251

천사백 후원금,
이젠 편리한 CMS로 납부하세요!!

CMS란?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만 알려주시면 일정한 날짜(15일)에 지정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CMS를 신청하시면 이런 점들이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 절감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별도로 연장할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변경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 전화(☎02-766-7671~3)나 E-Mail(cancer@kclf.org)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2004. 9. 1. ~ 2004. 11. 30.)

故홍성재 (3모)	광주 영광원자력본부(143 매)	권진욱(6)	김민아(1)
(주)드림팩토리클럽(211)	박금자 산부인과(37)	박기식(10)	박석환(4)
심상원(1)	윤재현(7)	이강목(24)	정대훈(1)
정인수(57)	조혜린(1)	(주)보릿골(78)	채성석(9)
천강재(7)	하은혜(3)	한국남동발전(60)	한화그룹 6개사(201)
홍태현(90)			

*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 특별 후원금

2004년 9월 대양수산상사 1,000,000	안철우 500,000
우정사업본부 500,000	임병호 1,854,800
장국영대구모임 360,000	최희정 200,000
2004년 10월 한국남동발전(주) 1,000,000	심지영 1,000,000
옥선(주) 1,000,000	양지마을사람들 500,000
2004년 11월 보릿골 1,064,500	이홍상 136,000

◆ 후원물품 (2004. 9. 1. ~ 2004. 11. 30.)

김병찬母 글	김화정 오징어	부산체신청 드럼세탁기
사랑터 식료품	서성혁 글(2 박스)	손민기 음료수
신일중학교1학년3반 학용품	이단비母 마늘	이종욱父 사과
이철주父 고무마	익명 뮤지컬티켓	오로라월드(주) 인형
임명현 반찬	정영환母 감	조용구 사과 배
천강재 도서상품권(3) 문화상품권(1)		최영석 화장지(2) 버섯
한국정보통신(주) 쌀(30 포대)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 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4년 겨울호는 한국쉐링 SCHERING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
making medicine work